

연중 제2주일

기도서 P. 239 C해

제1독서(이 사 62, 1-5)
 제2독서(ㄷ 린 전 12, 4-11)
 복 음(요 한 2. 1-12)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강론



가나의 혼인잔치

박 성 팔 신부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탄시기 동안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강생이야말로 천지창조보다도 위대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이에게 주어졌음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여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토록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한결같은 그분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 또 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룩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메시아 시대의 상징인 결혼축제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적 기쁨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당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당신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적 기쁨을 예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아니 바로 나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미 사랑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한시도 나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송두리째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나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모든 생활이 미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 미사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머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천상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권원사업의 제일 협조자이신 성모 어머님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듯 모든걸 주성모님께 의탁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수고의 값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모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삭막한 세상에 사랑의 표적을 세웁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상잔치에 초대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복자 천주교회 보좌신부〉



사흘에 600원

—늘면 멋허

시내버스에 50대 부인네를 셋이서 올라탔다. 자리를 양보받은 부인네들의 대화가 하도 아리송하다. “그러니까 380원을 벌었구만.” “그래요, 왕복차비 120원을 빼니 380원이 맞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알고 본즉 55세난 부인이 이들동안 들판에 나가 나물을 뜯어다가 삶아서, 중앙시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팔았더니 6백원이 손에 잡혔다는 이야기이다.

“내일도 또 할래요?” “글쎄, 늘면 멋허. 남들은 나물 뜯어다가 팔아서 밥때기도 사고 논도 사길래 한번 히맛더니 힘들구만.”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가져 오쇼. 내가 사께. 밭사고 논사는 사람들이 성님같은 줄 아쇼. 남의 집 시금치 밭도 손대야 그렇게 되어라우. 계속되는 대화를 듣자니 가슴에 찡하니 와 닿는게 있다. 이렇게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도 어렵게 사는구나.

아무리 따져 보아도 계산이 우습다. 이를 동안 나물뜯고, 하루(어쩌면 한나절인지도 모른다)는 나와서 팔았으니 사흘 품삯에 나물삶은 연토비를 따지면 도무지 잇(利)속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게 낫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착한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도 지지리 고생만 해야 한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일행 가운데에 있었다. 전주에 나올 때의 차비는 정님이; 성덕에 들어갈 때의 차비는 동상이 내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600원을 벌은 것이다. 쪼그맣게라도 झा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사랑)이 거기 있었다.

내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부당국은 또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또 참자는 것이다. 더 즐라뻔 것이 없는 가장 보잘것 없는 형제여, 또 참읍시다.

숲 정이 산책



주님안에 일치합니다

□ 구라주일에



집 념

장 크리스티나

발가락이 부르르고
손마디가 굽어도
목숨만은
바위를 뚫는 화산(火山).

고개를 들면
태양은
저만치 가까운데도
가슴은 먹빛에 잠긴
인내의 열매.

백년도 채우지 못하는
나그네 생(生)일진데
무지개빛 꿈을 뒤로 접어둔 채
살아서 이토록 고통이러니.

이웃을 휘돌아보고
인정을 모음은
나눔의 산 사랑.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기에.

한 뿔줄을 나누어 갖은
우리와 똑같이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 곁에 우리가
우리 곁엔 당신이
주님안에 영원한 한 형제인 것을.

<둔울동 본당>

□ 다음 주일은 구라주일

또 구라주일을 맞습니다. 이렇게 구라주일을 맞을 때마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 40)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열어붙은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머리로만이 아닌 조급이라도 미지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큰 약입니다.

다음 주일에 내시는 헌금은 나병 퇴치를 위해 쓰여집니다.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철면조가 가축, 부엽,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내정부락

철면조 사육장 요 셉

□ 단상 ①

길을 간다

최 규 환(알벨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길을 간다. 인생의 길을 간다. 그 길은 외롭고 정정당당한 길일 수 있고 비겁하고 욕된 길일 수도 있다. 가파른 길일 수 있고 내리막 길일 수도 있다. 앞이 내다보이는 편한 길일 수 있고 가시밭 길일 수도 있다.

동양에서는 모든 학문의 근원은 도(道)를 즉, 길을 따는다고 하였다. 인생의 참된 길을 따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선현(先賢)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길을 가는 자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시발점도 모르고 종착점도 모른다. 그것은 인생의 출발이나 종착점에 자기의 의지가 깃들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길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

길을 가는 자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외롭고 고달프다. 나는 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은 영생(永生)의 길이었다.

<신태인 사도회장>

감사합니다!!!

복음전파에 수고하시는 존경하울 <5월의 마돈나> 꾸리아 소속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中央본당 소속) 단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귀브레시디움에서 보내주신 <순정이성당 신축 협조금> 22만원,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순정이 성당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됨을 감명깊게 생각하며, 귀 브레시디움의 활동과 단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순정이 본당 모든 신자들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1980. 1. 14

순정이 천주교회 신자 일동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0921

범 띠도(떡배)·이 마리아

축! 심원 공소 강당 낙성

-1월 21일

고창 본당에서 80여리를 서해 바다쪽으로 나가면 천주교 심원 공소(會長 오래연)가 있다. 20여명의 공소 교우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공소 강당이 바로 내일 그 낙성식을 갖는다.

공소 교우들이 몸으로 배운 노력봉사(1백여만원)를 합치면 총 공사비는 4백5십만원이 들었다. 진평 28명의 강당을 짓기 위해서 본당기금(1백만원), 본당과 공소 교우들의 헌금(1백5십만원), 외부보조(1백만원)가 모아졌고, 이 정성들은 20여명의 공소 형제자매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자!

잘 해 봅시다!!!

-공소 지도자 피정을 마치고

지난 1월 8~9일간 1지구와 2지구의 공소 지도자를 위한 피정이 있었다. 64개 공소 가운데 22개 공소에서 26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참가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그럴법한 이유는 있다. 교구에서 발송한 공문에 날짜가 9~10일로 되었으니까. 교구 형협 공문(80-1호, 1월 5일자)은 제대로 나갔다. 그러나 9일에도 역시 별무 소식이다. 그러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살림을 하다보면 바쁜 일들이 많았겠지.

이 일을 거울로 삼자. 잘못된 일을 되새기는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바빠서 못나온 공소 지도자는 다음 기회(1월 28~29일)에는 꼭 참석하자

□ 참석률 100%...원평 본당, 오룡동 본당.

□ 한 공소에 두명 참석...부안 본당(청호 공소), 정읍 본당(진평·신성·노송공소)

□ 참가 실적...고창 본당(0/5), 김제 본당(8/10-용저·만경·와룡·광활·봉월·신암·백자동·요갓), 수류 본당(2/3-울치·시목), 신태인 본당(1/12-용암), 정읍 본당(5/10-진평·죽림·신성·노송·삼소), 대야 본당(0/4), 월명동 본당(0/2), 팔마 본당(1/3-개정)

본당 사도회장단 피정

-24(목)~25(금), 각 본당에서 빠짐없이 참가해야

<내적 쇄신(內的 刷新)>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피정이 1월, 2월중에 잇달아 있다. 교구내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제1선의 지도자인 본당 사도회장단의 피정이 1월 24일~25일 간에 가톨릭 센터에서 있는바, 여타가지로 바쁜 자유들이 있겠지만, 빠짐없는 참석으로 소기의 성과 거둠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요심이 (338)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스리아)

(이시계점별)

전화 ⑥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받지거)

☎ 2-3301 (자택 2-8548)

고창신행 공고 제2호

정기총회 소집 공고

아래와 같이 제6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정관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개최장소: 고창읍 읍내리 386번지 (고창천주교회 회의실)

개최일시: 1980년 1월 22일 10시
고창신행동조합장 이사장 유도영

로얄백화점 내
(삼화약국 옆)

백양 메리야스

직매점

채순심(아네스)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영

전화 ⑥ 8188 (자 ⑥0369)

□ 타을,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을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⑥ 2849 · ⑤ 5612

업판섭(베드로)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자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 저금통 숫자 보고 바람...참조 교구 평협 공문 80-1호(3)항 (1월 5일자)
- 1. 그리스도교 일치체를 위한 일치 기도 주간...1월 18일~25일<금>, 기도하십시오!
- 2. 사도회장단 피정...1월 24<목>~25<금>, 각 본당에서 2명씩 참가.
※ 참가비(1인당)...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 시내(3천5백원), 금산·무주·장계·장수·한들(2천5백원), 순창·원평(2천원), 기타(3천원)
- 3. 3·4·7지구 공소 지도자 피정...1월 28<월>~29일<화>
※ 1·2지구 공소 지도자 피정시 불참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3면참조
※ 3·4·7지구 해당 본당...용안, 함열, 화산, 고산, 삼례, 여산, 황등, 이리와 전주 시내 본당
- 4. 레지오 마리에 표미시움: 1월 20일<일> 오후 2시, 전통성당에서
- 5. 중·고등연합회 정기총회...1월 26일<토>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 연합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인후보 희망자는 본당신부님의 주천을 얻어 가톨릭센터에 접수 바람
- 6. 제13차 남성 워크숍...마나니마(22일<화> 오전 4시반), 폐회식(22일<화> 오후 6시)
- 7. 성모 기사회원 특별기도...매월 첫주 토요일 오후 7시, 노송성당에서, 지참물(묵주와 성가집)
- 교구 인사(80년 1월 5일자)...단체 지도신부
교구 인성회장...김환철 신부, 행복한 가정운동...김용태 신부, 교리교사 연합회...김기수 신부
- 문학강좌...1월 26일<토>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① 주제...한국 문학의 역사적 개관. ② 강사...염무웅(창작과 비평사상)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현수
보좌	신부	박선태	현수
보좌	신부	정태	현수
사도	회장	김병구	현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 1. 환영: 문정현 본당신부님과 성매수 보좌신부님
환영식-20일<일> 공식미사 후
- 2. 성모회: 20일<일>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25일<금> 어머니미사 후
- 4. 쉼 지도위원회: 20일<일> 오후 2시
- 5. 애령회 총회: 24일<목> 11시
- 지난주 봉헌금: 308,443원

- 1. 부임신부 환영식: 공식미사 후 있음
- 2. 병자방문: 22일<화> 반장님들 사전 연락 바람
- 3. 특별헌금: 27일 주일은 구라주일이오니 특별헌금
- 4. 사도회 임시회의: 공식미사후
- 5. 교무금 신임: 미신임자 신임 바람
- 6. 이·취임식에 교우여러분 협조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2,913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준근
사도	회장	박준근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성령세미나 개최: 21일<월>-26일<토> 매일 오후2시-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람)
- 2.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79년도 교무금을 완납 못하신 분은 속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0,945원

- 1. 성모회 월례회: 20일 공식미사 후
- 2. 요안회 월례회: 27일 공식미사 후
- 3. 지난해 미수된 봉헌금 27일까지 납부하세요
- 4.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순례(2만5천원), 중앙 교우 이인순(5천원), 중앙성당 평화의 모후 단원일동(2실 2만1천원), 이시창(20만원), 노제두(10만원), 노송 본당 신골롬바(2만원)
- 지난주 봉헌금: 167,35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기성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김유석

- 1. 축! 환영: 조정오 신부님 축하식-미사후에 있습니다
- 2.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 3. 주일학교 방학, 미사는 오후 3시
- 4. 성서·성가집을 꼭 지참합니다 앞자리에서부터 차례로 앉으시다
- 5. 대학생 동계 단합대회: 경남 해금강. 회비-7,000원
- 6. 각 구역장·반장님 회의: 다음주(신부님 사무실) 빠지지 마시고 전원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58,765원

- 1. 표미시움: 오후 1시 30분
- 2.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 3. 예비자교리: 1월 23일 저녁미사 후
- 4. 중·고생 예비자교리: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 장소-사제관 2층
- 5. 교무금 신임하시기 바랍니다
- 6. 교도소 영세: 24일 오후 2시
- 7. 중·고생 모악산 등반: 20일
- 8. 예비자교리: 일반인-10시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322,55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택팔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2. 대학생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대학생미사-주일 저녁 7시 (전원 참석 바람)
- 3. 미사시간 엄수: 성서·성가집·기도서 필히 지참
- 4. 봉헌금 봉투 자기것인가 환인후 봉헌 바람
- 5. 본당내 병환중 신자: 20명, 기도 바랍니다
- 6. 구라주일: 27일 나누어드린 봉투에 정성을 담으시다
- 7. 사도회장단 피정: 24-25일(사도회장님·부회장님)
- 8. 중·고등학생 연수회: 21-23일까지, 오후 2시-6시까지(중·고생 전원 참석 바랍니다)
- 9. 교구설정 50주년 기념행사 설문지 취지문: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68,306원

- 1. 80년도 교무금 하느님 말씀대로 11조 정신으로 신임 바람
- 2.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주일 공식미사 후·주일 저녁미사 후·목요일 저녁미사 후
- 3. 미사시간 변경: 화요일부터(22일) 저녁미사 7시30분에 있습니다
- 4. 각쁘레시디움 단장·부단장님들 오늘 저녁미사후에 모여 주세요
- 5. 50주년 설문지 오늘까지 제출 바람
- 6. 긴급 학생회의(중·고): 26일 오후 4시 아동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0,390원 어린이헌금: 3,475원
교무금: 7,000원